

EU COST, 연구과제 공모

유럽의 과학자 및 연구자들의 과학, 기술, 연구 협력을 지원하는 범유럽 정부간 네트워크 COST가 과학, 기술, 경제, 문화, 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연구과제를 공모한다.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의 선봉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안서나 젊은 연구자들이 관여하는 연구제안서 등

을 특히 환영한다고 하며, 예비 제안서 마감일은 9월 26일이라고 한다.

한편, 처음으로 시행되는 ITER(International The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국제핵융합실험로)관련 정부 조달도 발표되었다. 이번 조달은 ITER 사업에 이용될 “크롬으로 도금된 구리 스트랜드(Chromuim plated Copper

strand)”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ITER는 핵융합을 에너지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보기 위해 유럽연합, 러시아, 일본, 중국, 인도, 한국, 미국이 제휴하여 만든 국제 프로젝트이다.

출처 : IPR Helpdesk

EU 집행위,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해 설문조사 실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무역총국이 최근,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집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질문지를 통해 실시되는 이번 조사의 결과는 2006년에 실시되었던 유

사한 설문조사에서 얻어진 자료를 업데이트하는데 이용될 예정이다. 작성한 설문지는 늦어도 5월 31일까지는 제출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집행에 문제가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향후 어떤 조치

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지식재산권 보호에 문제가 있는 국가들을 밝혀내는 슈퍼301조를 수 주 내에 발표할 방침이다.

출처 : IPR Helpdesk

EU, 중소기업을 위해 연구비 지원하는 EUROSTARS 프로그램

유로스타즈(Eurostars)는 24개 EU 회원국과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지역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연간 총 매상의 10% 이상을 연구개

발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연구비 등의 각종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제공동연구혁신 프로젝트에의 참가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1억 유로의 연구비가 EU의 FP7으로부터 지원되고, 추가로 3억 유

로가 참가국들로부터 지원된다.

매년 2회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며,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유로스타즈의 다음 지원서 마감일은 11월 21일이다.

출처 : IPR Helpdesk



EU, 중소기업의 다국적 연구기회 소개한 가이드 출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연구총국이 최근 SME Techweb 웹사이트를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소기업, 다국적 연구 기회 (SMEs keep local-go international. Opportunities for transnational research)”라는 제목의 가이드를 공개했다.

중소기업 관리자와 기업인들을 대

상으로 하는 동 가이드는 중소기업의 다국적 연구 활동 참가 기회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들이 기존의 국가 및 지역 제휴 기관을 통해 다국적 FP7 연구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수단들 (Eurostars, EraSME, CORNET, EU Exploratory Awards)도 소개하고 있다. 연구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중소기업이나 연구 활동 역량이 거의 없거나 결여되어 외부 조달이 필요한 중소기업들 모두 이 가이드를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동 가이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중소기업의 FP7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출판물 중 가장 최근에 SME Techweb에 소개된 가이드이다.

출처 : IPR Helpdesk

제공 R&D 특허센터 홈페이지
(www.ipr-guide.org)

해외특허동향

IP News

재미 한인 특허변호사협회 세미나 개최



“한미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양국특허청의 협력방안”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하였다.

김태만 특허관은 양국의 비준절차만 남아있는 한미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중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세부 설명과 함께, 한미 양국 특허청의 활발한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세계 5대 특허강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협력을 통한 각국 특허절차의 간소화 및 업무적체 해소를 향한 통일화 추세를 상세히 설명해주었다.

발제후에 회원들간에는 한미 FTA의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미국측에 유리하게 합의가 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거시적인 FTA 전략적 접근의 당위성과, 과거 특허침해의 소송을 당하

는 입장에서, 미국, 일본, 대만 등의 기업에 대해 오히려 특허침해의 소송을 공세적으로 제기하는 입장으로 바뀌고 있는 현재 IT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현실로 볼 때에 오히려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참고로, 재미특협은 회원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정보교환과, 관련법에 대한 합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한국 변리사협회 및 한국 특허청과의 교류,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과 정보 제공을 통해 한인 지식재산권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현재 35여 명의 특허, 상표 전문가 및 유수의 대기업 직원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 총무 채광업 변호사 (Tel: 703-535-7360)

지난해 창립된 미국 거주 한인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의 모임인 재미 한인 특허변호사협회(약칭 : 재미특협, KAIPLA, 회장 : 함윤석 변호사)가 격월로 개최되는 모임의 일환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지난 3월 27일 오후에 한미 과학협력센터 (Korea U.S. Science Cooperation Center)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한국특허청에서 주미 한국대사관으로 파견과와 있는 김태만 특허관이